

이 시간 로마서 1장을 다같이 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1:1). 라고 선언하며,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사람들에게 쓰기 약 25년 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며, 거기서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하기를, “주여 뉘시오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바울은 “예수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중생의 경험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할 때에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7-8)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울이 25년 전에 결단했던 결심이 아직도 변함없이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 현재까지 그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과거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경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고 말한 바울은, ‘예 지금도 의심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에게 같은 결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도 같은 관계가 계속되고 있을 때만이 과거의 경험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25년 전에, “주여 뉘시오니까? 내가 주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한 바울은 25년 후인 지금에 와서도 ”예수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전에 사도행전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사도행전 공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한 일인데, 은장색인 데메드리오란 사람이 큰 소동을 일으키고, 많은 도시 사람들을 선동하여 경기장으로 데리고 와서, “크도다 에베소의 다이아나 여신이어!” 라고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게 했던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바울은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서 고린도를 거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후에, 로마도 가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와 고린도를 거쳐, 결국은 로마에 가겠다는 소원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거기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서라고 불리는 서신을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가 사도행전에서 역사적으로 로마서가 기록된 때와 장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는 자기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자신을 던져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던 계획 대신에, 마케도니아로 향하여 북쪽으로 육로의 길을 택하여 드로아를 지나 해안으로 둘러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도착하려는 희망을 포기하고, 오순절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고, 가이사랴로 옮겨 거기서 2년간 투옥 되었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므로, 결국은 사도행전에 기록된과 같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약 2년 전쯤 되었을 때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갈 소원과 목적을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아닌 것, 혹은 높은 것,과 낮은 것, 또 큰 것과 작은 것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여야만 합니다. 만일 바울이 말하기를, ‘천막 만드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라고 하면, 그는 천막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타 운전수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낙타 운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든지, 그것이 당신의 생활에 가장 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상의 더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좀더 큰일을 해 보려고 감당치 못할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 지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일에 관여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간증을 말하고 싶으나, 시간이 없어 말을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은 일에 관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한 재앙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야망과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물론 로마서가 이 결과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1:2).

메시아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주를 위하여 집 하나를 짓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회막에 계시지 않는가? 그들이 아직도 회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며,”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 계시는데,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니,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요, 다윗 왕이여, 마음의 소원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단아,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다윗에게 성급히 말했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전하라. 그의 손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 그는 전쟁의 사람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어. 그러나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그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하라. 그의 씨가 왕위에 오를 것이니, 영원토록 계속되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튿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 왕이여, 내가 오늘 당신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가져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먼저 나쁜 소식부터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말씀 하시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고, 당신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다윗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한 집을 지으시겠다는데, 당신의 씨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하여 영원토록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메시아가 그의 씨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기를, “오 하나님, 주께서 양 지키는 목동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셔서 모든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막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도 그러한 경지에 이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커서,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샘 룰로라는 성도는 말하기를, ‘기도가 극치에 이르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들을 당신이 깨닫는다면,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할말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감당키 어렵습니다’ 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따르면,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온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가지인 이새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족보는 흥미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릅니다. 그러나 둘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그의 조상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각각 다윗으로부터, 다른 가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오는 족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상상하는 요셉까지 이릅니다. 지금 솔로몬의 계통의 족보에서 여고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렘 22:29-30에 보면,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고나라의 씨가 다윗의 왕위에 다시 앉을 수 없다고 저주하셨습니다. 만일 예수가 요셉의 후손이라면, 그는 왕좌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다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요셉은 엘리의 사위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족보를 보면, 다른 계보로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족보는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처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후손인

여고나를 통하지 않고, 나단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과정입니다. 여고나의 후손은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수가 없는 이유는 그의 씨가 영원히 이스라엘 왕좌에 오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족보가 모두 다윗을 통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1:3-4)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러한 선언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1:5-7).

이 말씀을 개인적인 것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쓴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로마라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하나님의 성도들, 곧 교회에게 하신 편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신약에서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은 항상 함께 가고, 또 순서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평강과 은혜라고 기록된 곳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치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통해서 확립된 하나님과의 평강은 알았으나,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 속에 지니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내자신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나의 선한 일을 노력하는 한, 결코 평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항상 고토가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항상 하나님께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곤 했습니다. 나는 안식을 찾지 못하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 지을 깨달을 때까지는 결코 내 마음속에 평강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항상 먼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치 못했다면, 당신은 아직 당신 생활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1:8)

로마에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애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1:9).

바울이 그의 기도생활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한 것은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마 6:6).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특히 기도하려고 골방에 들어간다고 광고하지 말라. 그리고 특별한 카펫 위에서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지 말라. 그리고 양탄자 한 조각을 5불에 사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기도 양탄자를 가지고 가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 하실 때에, 주님의 발이 닿을 만한 곳에 양탄자를 퍼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당신을 위해 감람산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의 기도제목을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기도제목을 보낼 때에 현금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지에 당신은 작은 기도 양탄자 조각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하십시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 생활에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거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기도애 항상 당신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0)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가지 그가 아는 것은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는 일과 투옥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1:10) 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로마로 가야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옥에 갇혀 용기가 저하되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바울아, 힘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대한 증거를 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비록 배가 파산을 하였고, 배가 파산함으로 말타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부블리오를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바울이 섬에 있는 동안 많은 말타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웠으나, 영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4 일 동안 바다에서 폭풍으로 사람들이 토하기만 하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1:11)

바울의 소원은 단지 로마에 있는 경기장이나 경이적인 모든 대리석 조각이나 건축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소원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신령한 선물을 나눠줌으로 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1:12)

우리는 서로가 영적인 도움을 주고 받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당신 자신이 가진 것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봉사는 서로 주고 받음으로 항상 상호간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1:13)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음과 같이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14-17)

그래서 바울의 선언은 나는 로마에 갈 준비가 되어있고, 로마에 가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불의하게 용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되, 의로움의 기초에서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무조건 형벌을 모두 없애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고 무조건 말하는 것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움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데도 의로움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로움의 기초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인이 받아야 할 당연한 언도(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야 할 곳에서 예수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위한 대속의 희생이 되는 기초에서 용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로운 자가 대속의 죽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 용서에 대한 의로움의 기초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빚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즉시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1:18)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발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먼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먼저 나타나고, 둘째는 불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경건과 불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 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돌 판은 처음 4개의 계명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기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무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자, 첫째 4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관계가 옳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건치 않음이라고 합니다. 둘째 돌 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돌 판의 명령을 어기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그 말씀을 불의한 가운데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1:19)

나 자신의 양심 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양심 속에는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심령과 양심 속에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1:20)

아니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내가 압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자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1:20-21)

지금 내 생활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다룰 때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다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나에게 당신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태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에 어떤 복음 전도자들은 이러한 두려운 것들을 제외하고 있다. 그들의 많은 가르침들이 잔실로 경건치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람을 높은 권위에 앉히게 되고, 하나님을 그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척,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나 ‘척,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자신의 소원이나 일시적인 생각이나 원하는 것을 성취해 주어야 하는 격이 됩니다.

나는 아주 큰 교회의 잘 알려진 목사가 쓴 책에서 그가 자전거를 갖기를 원했고, 그 자전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자전거를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주시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께 화가 내며, 말하기를, ‘내가 이토록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자전거를 주지 않으시니,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니, 그것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종류의 자전거를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자전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텐 스피드, 혹은 크루즈 등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말하라” 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성경책에는 그러한 태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자전거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면, 내가 무슨 종류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전거의 모델 번호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강력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이나 나의 번덕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에 맞추어서 일하는 지니와 같은 요정이 아닙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지니와 같은 요정으로 대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 쟈이다”(벧전 4:19).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길만이 내가 아는 참된 평화와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꼭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거기서 안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뉴포트에 있는 한 땅을 구입하려고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땅을 가지게 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 땅을 꼭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던가, 혹은 그렇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식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 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로 기도합니다. 만일 내가

‘이 땅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며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격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이 나의 뜻에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드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마음에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드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려운 시련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 올 때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마음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기대치 않고 사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 올 때에 마음의 동요가 매우 심하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올 때에 결코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올 때에 마음의 동요가 없음은 그가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내가 계획한 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변경시켜도 좋습니다. 나의 계획이 잘못 되었으면, 주님에 뜻에 맞추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늘 나의 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내가 계획한 여행이나 계획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미쁘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1:21-22)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의 신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도 영접치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며, 내 모든 운명의 주다. 나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고, 만물을 바라보고 가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인 현상을 떠나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인 발생,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환경에 의해 이뤄졌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자들이 상투적으로 잘 사용하는 문구가 우연한 환경에서 우연히 발생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무엇이든지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우연한 환경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는 사고 방식을 발전시켜 결국은 당신도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말합니다. 수 억년을 통해서 수 억의 자연 발생적인 결과로 갑자기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세대를 이루어서 당신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유럽에서 1975년에 흥미 있는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칼 사이킨이라는 과학자가 이 모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책을 엮었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과학자들이 모여 우주에서 지구를 향하여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심포지움이었습니다. 그 책이 ‘우주 소통에 관한 매사추세츠 기술 연구원(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on Extraterrestrial Communication)’ 이란 내용의 책을 칼 사이킨이란 과학자가 지구 밖에서 지구를 향하여 소통하려는 시도의 여부에 대해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제출한 논문을 편집하였습니다. 첫째, 연구 과제가 우주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생물체의 존재 여부의 확률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물체가 존재하자면, 생체 세포가 형성 되어야 하는데 모든 가상의 악조건들을 컴퓨터에 넣어 봤더니 세포 하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10의 27성에 겨우 한 세포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을 보였습니다. 가령 지구가 60억년이라고 가상 한다면, 이것은 10의 17성의 초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포 하나를 생성하는데 60억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포 두 개를 생성하는데 요구되는 확률의 가상시간은 사람이 계산하는 수를 능가함으로 우주의 생물체의 존재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지구에 소통하려는 시도를 연구해 보려는 심포지움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죠.

이 논문을 흥미 있게 읽었는데, 만일 지구 밖에서 생물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면, 지구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지구 밖에서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면, 지구에서도 생명체의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명체를 설명하자니 가상적인 기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고, 각가지의 어리석은 허망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수 억년 전에 이 땅에 원시적인 형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세포가 지렁이 같은 모양으로 발전 되어, 이것이 물에서 나와 육지에 오르려고 시도 했을 때. 물고기 같은 형질이 낯선 환경에서 쫓겨 뛰다가 바위나 산호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 난 자리가 점점 자라 발과 발가락을 가진 다리로 변화였고, 또 수 십억년이 지나서 다른 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훌쩍훌쩍 뛰던 것이 이제는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고 말한 바울의 말에 나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 선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주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환상적이고, 믿을 수 없는 헛된 상상에 빠지게 되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과학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1:23)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위치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로새겨 사람과 같은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었다. 고대적 사람들이 숭상하던 우상을 보면 흉하게 생긴 여러 가지 사람의 모양이나 피조물을 자식들의 신이라 하여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1:24-25)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한 아이를 기억하는데, 친구들이 sunshine and health magazine을 숨어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는 음화가 가득히 실려 있었습니다. 이 잡지에는 미국에 있는 누드주의(벗은 몸)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잡지를 남학생들이 훑쳐보고, 서로 연락하여 그 잡지를 구입해 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생애에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해 가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음화들이 실린 잡지들을, 식품점 가게나 약방이나 어디서든지, 공공연하게 공중에 노출된 장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것들에 버려 두신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도덕적 부패가,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일을 동반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주를 이해해 보려고 시도함과 사람의 생각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소원대로 내어 버려 두시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하며, 자기의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아다시피 진화론의 결과적 논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세포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의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단한 변화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자연의 적응력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욱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연을 신격화하여 비합리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연을 보고, 자연을 경배한다면, 당신은 한결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비합리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자연을 바라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다' 라고 말해야만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을 보고, 합리적으로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보고, 비합리적으로 관찰한다면, 영원히 찬송을 받아야 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1:26-28)

극도로 부패하여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에 볼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바울이 경고하였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생활에서 제거하고, 학교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양심에서 제거하고 나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도덕적인 시궁창에 더 깊이 빠져들어 가는 결과를 초래함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가 도덕적인 밑창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의로 가득차고,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1:29-31)

마치 아침 신문의 기사를 읽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둘러 쌓여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생활에서 배제하고 나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함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회에서 똑같은 현상이 현재 우세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1:32)

요즘 당신은 연속극을 보고 있습니까? 연속극을 즐기고 있습니까? 미궁에 빠져있는 살인 연속극 같은 것을 즐겨보고 있습니까? 음탕한 X급의 영화 같은 것을 보며 즐기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러한 영화를 보며 즐기고 있다면,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독선적인 태도로 '나는 음란한 일을 행한 적이 없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내가 결코 이러한 악하고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읽고 즐기며, 그러한 영화 장면을 보며 즐기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결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하는 장면을 보며,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의 함정에 빠뜨리고, 그 속에 끌어 넣으려고 우리에게 그의 계락을 끊임없이 퍼붓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는 사탄의 간계로 가득히 둘러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적이고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단지 인생의 극이야! 나는 인생의 극을 좋아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마음대로 합리화하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관망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 속에서 쾌락을 누린다면,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